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5호 2014년 10월 pp.219~261
한국세무학회

세울수준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유병관** · 홍정화***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아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에 대하여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여섯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기업형태 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세무학회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2014년도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kgybk@naver.com, 031-202-5005, 주저자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jhhong@gachon.ac.kr, 031-750-5215, 교신저자

일곱째, 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사업자와 세무종사자 직업군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는 세무종사자가 법인세는 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조세정책, 세율수준, 납세순응도, 납세의식, 조세행정 신뢰도

I. 서 론

최근 조세정책 중 세율에 대한 감세와 증세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고 납세의식의 개선과 납세순응 행위를 향상시켜 탈세행위 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율수준의 변화라는 조세정책은 강력한 세무조사 및 징벌적인 가산세 부과와 더불어, 성실납세자 우대정책 등 성실한 납세의식 증대와 납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율의 인하·인상 정책 등도 납세순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법인세, 소득세 세율변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활성화, 전략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세율의 인하는 소비촉진에 따른 내수시장의 증진, 소외계층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주장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세율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해 세수 감소로 인해 국가의 건전재정을 해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유병관, 2014).

이와 같은 논쟁에서 조세정책 중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과 관련된 연구, 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은 다수 이루어졌으나 세율변경에 따른 납세순응도 연구는 미미하다.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순응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대개 실험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세율인상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Beck, Davis & Jung, 1991)가 있는 반면에 세율인상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다(Moser, Evans III & Kim, 1995 ; Collins & Plumlee, 1991 ; 박주철 · 이남우, 2003).

하지만,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조세부담이 감소되면 조세회피를 지양하고 납세에 순응하려는 태도도 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율의 인하로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관계에 있다면 조금의 세율이 인하되어도 과세표준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율 감소만큼의 조세부담의 감소는 발생되지 않아 국가의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으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는 해를 끼치

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세율의 변화 등 조세 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세율수준의 변화라는 조세정책이 납세의식 및 납세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 납세의식 및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세율수준의 변화라는 조세정책에 납세의식 및 납세자 신뢰도가 매개 하여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세율수준의 변화라는 조세정책이 기업형태와 집단형태에 따라서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세율 변화와 관련된 연구

Beck, Davis & Jung(1991)은 소득금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소신고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의 변화에 따라 신고소득이 달라지는지와 위험회피자의 경우 세율인상이 신고소득 상승을 가져오는지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간 신고소득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감사받을 확률과 징벌적 가산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고소득의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변수는 신고소득의 분산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Moser, Evans III & Kim(1995)은 조세신고에 관한 경제적 이론은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소득을 더 신고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 실증적 연구들은 경제적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이와 상반된 결과들도 제시한다는데 착안하여 납세자들이 세율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세부담의 상대적 공평성을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세율이 인하되는 상황설정에서도 신고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었고,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설정에서는 신고소득이 완만하게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상대적 불공평성을 지각하는 그룹에서는 세율의 인하라는 상황에서 소득신고금액이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신고금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을 위험회피자로 간주하여 세율인상에 신고소득금액의 증가로 대응할 것이라는 경제학적 이론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결국 납세자들이 세율인상에 대하여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의 상대적 불공평성이라는 지각이 소득신고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Boylan & Sprinkle(2001)은 소득유형(증여소득 대 근로소득)이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단계로 이루어진 실험을 설계했다. 연

구결과는 소득유형이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준응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증여소득의 경우에는 실험참가자들이 세율인상에 과세소득을 10%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근로소득의 경우 실험참가자들은 세율인상에 대하여 43% 더 높게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반응했는데 이는 세율과 납세준응과의 관계에 관한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종합하면 개인들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요구된 시간과 노력의 양에 따라 그들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달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주철·이남우(2003)는 세무회계사무소 종사자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소득원천에 따라 세율변화에 따른 납세준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실험 연구한 결과, 증여소득 실험상황의 경우 세율이 높은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액이 세율이 낮은 집단의 평균 신고소득액보다 약간 줄어드는 하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증여소득의 경우 세율과 신고소득수준은 음(-)의 관계일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또한, 소득생성에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 직무소득의 경우 개인들은 기회비용에 화폐가치를 부여하고 세율인상으로 인한 높은 징벌적 가산금으로부터 보루소득을 지키기 위하여 신고소득수준(납세준응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또한, 세율인상에 따른 신고소득수준의 차이가 소득유형, 세율,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 중 어느 것에 유의한 영향을 받았는지 검증한 결과 소득유형효과, 소득유형과 세율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유형이 직무소득에 해당하고 세율 인상시 세율인상을 만큼 과다해진 징벌금가산금으로부터 소득획득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에 해당하는 보루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상호작용효과에 의하여 실험참가자들은 신고소득수준을 유의하게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공윤옥(2008)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납세준응태도에 미친 영향을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재활용폐자원의 조세지원정책의 하나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증가시키면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납세준응도가 높아져 세수의 감소 없이 재활용폐자원 산업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희상(2009)은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2007년 부당신고가산세율이 세목에 따라 최저 33.3%에서 최고 300%까지 급격하게 인상된 시점을 전후로 기업의 신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 기업의 실제 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후, 개별기업체의 회계 실무책임자나 담당자들에게 부당신고가산세율에 대한 인지여부 등과 신고반영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신고가산세율의 변동이 납세준응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당신고가산세율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고소득율, 부가가치율, 접대비성경비의 지출 변화, 임원의 급여 수준 등의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부당신고 가산세율 인상이 납세준응도에 유의적인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2. 납세준응과 관련된 연구

Collins와 Plumlee(1991)은 경제·경영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율변화, 세무조사 계획, 가산세율 등이 소득신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 연구한 결과, 기준율이하 최저 신고자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단순히 무작위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과소신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집단간 차이결과는 세율이 높고 조세회피액에 대한 가산세율이 낮을 때 과소신고액이 더 컸다. 즉, 세율인상과 납세준응은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세율인상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여가선용 등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현진권 등(2001)은 납세준응행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세율과 납세준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져,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준응도도 낮아지며, 또한 가산세율과 납세준응도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가산세율이 높아지면 납세준응도도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책수단들의 납세준응도에 대한 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정책수단이 납세준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이 납세준응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의 탄력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납세준응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정책수단을 집행할 때는 변화 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여야 효과적으로 납세준응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창균·현진권(2002)은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준응행위를 분석한 결과 세율은 납세준응도에 음(-)의 영향을 주어서 세율이 높을수록 준응도가 낮은 관계를 보여주며, 세무조사와 가산세율은 납세준응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며, 공공재 제공과 준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보여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금에 대한 교육은 납세 준응도를 높이는 데에 유효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세무조사 및 가산세율이 처벌중심의 정책수단인데 비해, 교육은 비교적 납세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므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박명호·심태섭(2008)은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세정당국은 미혼자, 젊은 연령의 납세자 그리고 소득이 높은 소득자에 대하여 납세준응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많이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납세준응태도 개선방법으로 세정당국은 납세자를 상대로 세정당국에서 각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노력과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계속적으로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구광희(2010)는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준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세무조사, 납세의식, 납세자 신뢰도가 각각 납세준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납세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조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여야 하며, 정부가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세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

어주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조사면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무조사의 선진화 방안으로 투명한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태성(2010)은 2008년도 제주도의 지방세 부과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바, 신고납부제도가 부과지제도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등록세는 취득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으며, 취득세는 주민세보다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근(2011)은 세무정보 전산화와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세무정보 전산화를 한층 더 보완하여 완벽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 행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승한(2013)은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세무대리인 등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납세순응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납세순응도의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집단 간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납세순응도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납세인식과 세금의 부담정도, 납세형평성, 탈세의 규모, 탈세의 적발정도, 납세순응을 위한 제재와 보상제도, 조세마찰의 인식 등에 대하여 집단별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였으며,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본 연구는 세율을 변화시킨다는 조세정책에 따른 과세당국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려한 통합 연구모델에 의하여 조세정책의 세율변화에 따른 납세순응 여부를 다양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즉 연구대상자는 조세를 집행하고 있는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등 직접적으로 세율변화에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세분화하며,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선행연구는 대부분 측정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단순 분석하였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2차원적 이론변수를 구성하여 이들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다양하게 검증하여 세율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선행연구는 거의 대부분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선정하여 검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세율변

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자의 신뢰도와 납세의식을 매개변수로 한다. 그리고 최종 종속변수로 납세순응도를 설정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자세히 검증하고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여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수준 변화로 인한 개별 납세자의 조세부담에 대한 순응도를 검증해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진일보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의 설정

가.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인세율 수준 및 소득세율 수준의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또한 세율수준의 변화에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얼마나 매개 역할을 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독립변수로는 세율수준 중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선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납세순응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였다.¹⁾ 또한 기업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직업군(소득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를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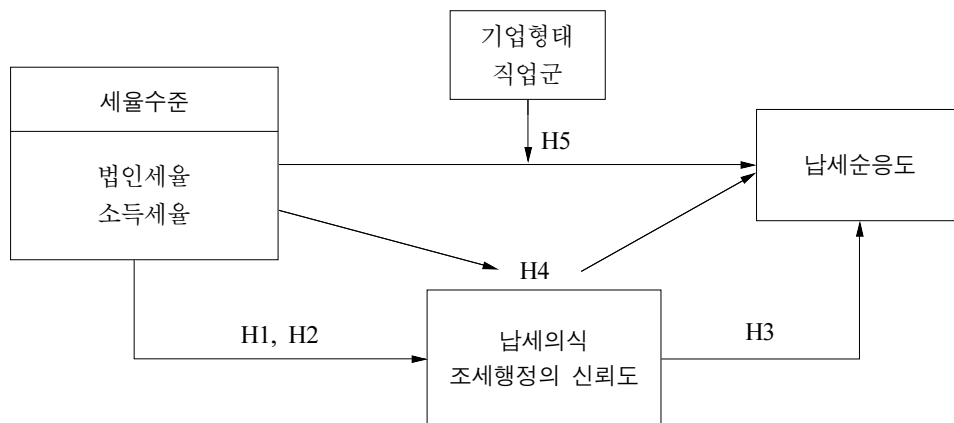
한편 Moser, Evans III & Kim(1995), Boylan & Sprinkle(2001), 현진권 등(2001), 정희상(2009)은 세율변화를 독립변수로 납세자의 태도변화를 종속변수로 선정한 바 있고, Collins & Plumlee(1991), 박주철·이남우(2003)도 세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박명호·심태섭(2008) 및 정태성(2010) 등은 납세순응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한 바 있으며, 구광희(2010)는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와 납세순응 행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 현진권(2005), 구광희(2010), 홍성근(2011) 등은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현진권 등(2001)은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한 납세인식제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구광희(2010)는 납세의식과 납세순응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율수준 변화라는 정책수단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의식이나 조세행정의 신뢰도 향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인지 가늠해보기 위해 매개변수로 선정한다.

2) 납세순응도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조절변수로 선정한다. 김승한(2013)에 의하면 납세순응도는 납세자, 과세권자, 세무대리인 등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나. 연구가설의 설정

세율을 변경시키는 조세정책은 개인이나 기업의 조세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국세기본법 및 각종 세법에 의해 과세기간의 종료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조세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세정책 및 증세정책은 납세준응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1) 세율수준과 납세의식 관계

박주철·이남우(2008)는 과세의 공정성 지각과 같은 납세자의 과세불공평성 인식이 납세 불순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박명호·심태섭(2008)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세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 내용과 같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여전히 높고 음성적인 현금거래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탈루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 2013.10.10).

따라서 세율을 변경시키는 증세 및 감세의 조세정책 변화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납세의식이 향상된다면 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진 세율만큼 세수가 늘어나 국가재정에 기여할 것이며, 세율이 낮아져도 납세준응도는 증가되어 탈루소득이 감소되어 국가의 재정수입은 감소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의 감세정책에도 탈세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납세의식이라면 세율이 높아진 만큼 소득을 탈루할 것이며, 세율이 낮아지고 탈루소득은 동일하다면 납세순응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는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소득세율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법인세율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세율수준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현진권(2005)은 법과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수준이 조세문화 수준을 결정하므로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조세풍토인 조세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세청은 업무의 특성상 시혜행정이 아닌 “징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다보니 관료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어 국민이 바라보는 국세행정의 성과는 어떤 모습인지 평가를 받아 세정운영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2008년 5월 정부기관 최초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직접 평가한 「조세행정의 신뢰도 평가」 결과 2007년 62.5점, 2008년 71.8점, 2009년 73.2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납세자 신뢰가 높아지면 국민행복 가치 창출과 납세순응도 또한 같이 높아져 자발적 납세환경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세행정의 신뢰도 1점 상승시 납세순응도는 0.54점 상승되어 납세자 신뢰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었다고 자체 평가 하였다(국세청, 2008.5.30.).

따라서 조세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납세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소득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법인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와 납세자 순응도 관계

국세청이 직접 평가한 조세행정의 신뢰도 평가에서도 조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가 높아지면 국민행복 가치 창출과 납세순응도 또한 같이 높아져 자발적 납세환경이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세의식은 납세자들이 조세전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과 가치관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납세자의 마음 자세나 태도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심리상태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신뢰성을 정착시키며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및 납세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조세정책의 신뢰성 확보는 납세의식을 향상 시키며 납세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3]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납세의식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세율수준과 납세순응도 관계

국외 선행연구를 보면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순응도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는 대개 실험연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세율인상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Beck, Davis & Jung, 1991)가 있는 반면에 세율인상에 따라 납세순응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도 다수 있다(Moser, Evans III & Kim, 1995 ; Collins & Plumlee, 1991).

그리고 국내의 선행연구를 보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강압적 납세의무의 일환인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정희상, 2009)으로 나타났으나, 현진권 외(2001)에서는 세율과 납세순응도와는 음(-)의 관계를 가져 세율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공윤욱(2008)에서는 재할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의 변화는 납세순응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수진(2010)에서도 직접적인 금전보상(세액공제 등)은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의 일환인 증세정책은 납세순응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은 납세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감세정책(세율의 인하, 세액공제 및 감면의 증가)과 납세순응도가 정(+)의 관계에 있다면 조금의 세율이 인하되어도 자진납부세액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세율 등의 감소만큼 조세부담의 감소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창균·현진권(2002)에서처럼 세율과 납세순응도 간의 인과관계는 연구되었지만,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간 매개역할을 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며, 본 연구에서는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는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매개로 하여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세율수준은 납세의식을 매개로 하여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매개로 하여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세율수준에 따른 기업형태와 직업군 간 납세자 순응도 관계

개인 유사법인이라 할지라도 법인격 독립설에 의거 별도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개인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느끼는 세금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도의 사업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인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집단 간에도 세율변화에 대한 납세순응도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형태와 직업군에 따라서 조세정책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5] 기업형태와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5-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가설 5-2] 소득사업자와 세무종사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가. 독립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변수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선정의 구체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율 변천과정을 보면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아진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납세순응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법인세율의 동향을 보면 일부 국가에서 인하경쟁이 시작되어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의 변화가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 매개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매개변수로 선정한다. 매개변수의 측정은 Likert 5점 척도에 의한다.

첫째, 납세의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세전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과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납세의식은 납세자가 조세를 부담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출의 편익을 받으며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 심리적 상황으로 과세당국이나 조세법규 및 조세작용에 대한 가치관, 사고

방식, 행동양식을 모두 포함한다. 그것은 납세자의 마음 자세나 태도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심리상태 전체를 의미한다.

둘째,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지향하는 과세관청의 노력에 대한 납세자의 긍정적 기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국세청, 2008.5.30.).

다. 종속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납세순응이란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아니하고 자진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인식을 말한다. 즉, 비합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세금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조세회피란 성실한 납세의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순응도는 조세회피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며, 설문조사에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라. 통제변수의 정의

통제변수인 기업형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직업군은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로 구분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관련 변수들이 납세순응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세금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지의 구성은 세율수준,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도,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조사(pilot-test)는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9일 동안 4개의 표본 집단에서 총 20명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검증인 예비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를 사전 검증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문항을 수정, 추가 및 삭제 후 측정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공무원 별로 약 200명씩 설문지를 배포하고, 또한 세무대리인의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500명에게 배부함으로써 3개 직업군 총 1,1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응답지는 법인사업자 111명, 개인사업자 101명, 세무대리인 104명, 세무공무원 102명으로부터 총 418부를 회수하였고, 회수

율은 38%이다. 이중 세무대리인은 대부분 전자메일을 통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및 세무공무원은 우편과 팩스 또는 직접 회수의 방법으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회수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경우 회수율이 낮은 것은 주로 전자메일을 통하여 배포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업무집중시기(1월~3월)에 설문지를 배포함에 따라 설문에 응하지 않아 회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공무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배부 및 회수한 부분이 많아 평균보다 회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설문지의 설계

설문지는 총 7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내용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수준에 대한 설문,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순응도,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그리고 응답자의 특성에 관한 인구 통계적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6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³⁾

<표 1> 설문지의 구성

구 분	문항수	비 고
I. 세율수준 관련	6	소득세율, 법인세율
II. 납세의식 관련	6	박명호·심태섭(2008)
III. 조세행정의 신뢰도 관련	9	구광희(2010), 홍성근(2011)
IV. 납세순응도 관련	5	구광희(2011)
V. 조세정책의 개선방안	4	세율의 인상·인하 등, 정희상(2009)
VI. 응답자의 특성	5	인구 통계적 항목
합 계	35	

다. 자료의 분석방법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을 보면, [가설 1], [가설 2], [가설 3], [가설 5]의 분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또한 [가설 4]의 분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역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3) 실제 자료 수집에 사용된 설문지는 본 논문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응답자의 특성과 기술통계량

가. 응답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대상자로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총 418명에 대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⁴⁾

<표 2> 표본의 분포 및 특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직 업 군	법인사업자	111	26.6%	26.6%
	개인사업자	101	24.2%	50.7%
	세무대리인	104	24.9%	75.6%
	세무공무원	102	24.4%	100.0%
세무조사 경험유무	경험있다	178	42.6%	42.6%
	경험없다	240	57.4%	100.0%
성별	남 자	290	69.4%	69.4%
	여 자	128	30.6%	100.0%
연매출액 (2012년)	없음(세무관련자)	206	49.3%	49.3%
	1억미만	35	8.4%	57.7%
	10억이하	72	17.2%	74.9%
	50억이하	59	14.1%	89.0%
	100억이하	37	8.9%	97.8%
	100억초과	9	2.2%	100.0%
근속연수	1년미만	12	2.9%	2.9%
	1~5년	131	31.3%	34.2%
	6~10년	126	30.1%	64.4%
	11~20년	99	23.7%	88.0%
	21년이상	50	12.0%	100.0%
합 계		418	100.0 %	

4) 본 연구는 세율수준 변화, 납세의식과 조세행정 신뢰도, 납세순응도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납세자로서 개인사업자(소득세), 법인사업자(법인세)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세무당국의 관점을 검증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을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을 설문대상자로 선정하

첫째, 직업군 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111명 26.6%, 개인사업자 101명 24.2%, 세무대리인 104명 24.9%, 세무공무원 102명 24.4%로 직업군 별로 균등하게 조사 되었다.

둘째, 성별로는 남자 290명 69.4%, 여자 128명 30.6%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사업자의 경우나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모두 여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2012년도 연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이 없는 비사업자로 분류한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이 206명 49.3%이었고, 매출액 1억원미만 35명 8.4%, 1억원이상~100억원미만 168명 40.2%, 100억원 초과 9명 2.2%로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자이다.

넷째, 근속연수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년미만 12명 2.9%, 1~5년 131명 31.3%, 6~10년 126명 30.1%, 11~20년 99명 23.7%, 21년이상 50명 12.0%로 조사되어 10년 전후의 기간 종사자이었다.

다섯째, 세무조사 무경험자가 240명 57.4%로 세무조사 유경험자가 178명 42.6%보다 많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표본의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총 418명 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3>과 같다.

소득세율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39,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35로 나타나 대체로 평균치 이상으로 높거나 조세를 약간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2.95로 설문응답자들이 다소 낮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법인세율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현행 법인세의 세율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2.79, 법인세의 세율이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2.72로 설문응답자들이 다소 낮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법인세의 세율이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의 평균치는 3.06로 나타나 평균치 이상으로 세율이 낮다는 인식과는 상반되게 조세를 약간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납세의식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는 3.0이상으로 나타나 납세의식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세금을 납부할 때의 생각에 대한 평균치는 2.51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었다. 다만, 세무공무원을 설문대상에 포함하여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응답결과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나 조세행정 현장 근무자인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응답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대한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는 대체적으로 3.0이하로 나타나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국세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홈택스 서비스의 이용, 민원업무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에 대한 인식도는 3.0이상으로 평균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납세준응도에 대한 문항별 인식도의 평균치는 대체적으로 3.0이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균치는 2.95, 우리나라 납세자의 성실납세수준이 높다고 생각 하십니까에 대한 평균치는 2.69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세율수준 · 소득세율	①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8	1	5	3.39	.739
	②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인지?	418	1	5	3.35	.940
	③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418	1	5	2.95	.755
	· 법인세율					
	④ 현행 법인세의 세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8	1	5	2.79	.802
	⑤ 현행 법인세율은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418	1	5	3.06	.975
	⑥ 현행 법인세의 세율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2.72	.763
2. 납세의식	①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18	1	5	2.51	.775
	②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8	1	5	3.06	.836
	③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8	1	5	3.49	1.051
	④ 세금을 축소 보고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3.84	.831
	⑤ 주변에서 탈세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3.52	.843
	⑥ 세금 중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 하십니까?	418	1	5	3.80	.671

〈표 3〉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량 (계속)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3. 조세행정의 신뢰도	①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공정하다.	418	1	5	2.97	.892
	②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등 조세정보는 신뢰할 만하다.	418	1	5	2.86	.935
	③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	418	1	5	2.99	.944
	④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418	1	5	2.82	.922
	⑤ 국세공무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418	1	5	3.23	.869
	⑥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신뢰한다.	418	1	5	2.87	.911
	⑦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는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418	1	5	3.72	.901
	⑧ 세무행정에 대한 조세불복 절차 및 경로가 간소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418	1	5	2.94	.921
	⑨ 민원업무처리 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하다.	418	1	5	3.16	.885
4. 납 세 순응도	①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418	2	5	4.11	.813
	②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2.95	.929
	③ 귀하는 각종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18	2	5	3.94	.873
	④ 본인 및 타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2012귀속 소득금액이 실제의 소득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3.39	1.131
	⑤ 우리나라 납세자의 성실납세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	5	2.69	.869

2. 신뢰성, 타당성 및 상관관계 분석

가. 신뢰성분석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연구대상에 대해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측정변수의 반복가능성 또는 내적일관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해 개별항목과 전체항목간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했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는 통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 이상이면 대체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0.8 이상이면 매우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 적용한 <표 4>의 항목들의 신뢰성의 경우,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 문항 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소득세율은 3개항, 법인세율은 3개항, 납세의식은 6개항,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9개항, 납세준응도는 5개항으로 설문 문항 간에 내적 일관성이 있어 설문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⁵⁾

〈표 4〉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

변수명	측정항목	전체 상관관계	제외시 Cronbach알파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소득세율	1-1번 문항	0.558	0.427	0.668	3
	1-2번 문항	0.333	0.755		
	1-3번 문항	0.518	0.474		
법인세율	1-4번 문항	0.560	0.211	0.609	3
	1-5번 문항	0.181	0.818		
	1-6번 문항	0.487	0.340		
납세의식	2-1번 문항	0.267	0.524	0.659	6
	2-2번 문항	0.394	0.465		
	2-3번 문항	0.311	0.620		
	2-4번 문항	0.309	0.505		
	2-5번 문항	0.338	0.492		
	2-6번 문항	0.470	0.450		

5) 소득세율(1-2번), 법인세율(1-5번), 조세행정의 신뢰도(3-7번) 등은 신뢰성분석 결과, 변수 제거시 크론바하 알파값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요인 구성항목으로써 의미가 높은 항목인 관계로 제거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기본 설문문항이 3문제로 구성되어 탈락시키지 않고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경우 전체 알파값이 0.88이상으로 높아 변수 탈락에 따른 기여수준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4> 측정변수의 신뢰성 검증 (계속)

변수명	측정 항목	전체 상관관계	제외시 Cronbach알파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조세행정의 신뢰도	3-1번 문항	0.637	0.871	0.884	9
	3-2번 문항	0.684	0.867		
	3-3번 문항	0.747	0.861		
	3-4번 문항	0.706	0.865		
	3-5번 문항	0.630	0.872		
	3-6번 문항	0.758	0.860		
	3-7번 문항	0.364	0.893		
	3-8번 문항	0.607	0.873		
	3-9번 문항	0.566	0.877		
납세 순응도	4-1번 문항	0.425	0.658	0.701	5
	4-2번 문항	0.474	0.636		
	4-3번 문항	0.463	0.642		
	4-4번 문항	0.444	0.658		
	4-5번 문항	0.472	0.639		

나.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측정된 자료가 과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사실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개별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들끼리 하나의 요인으로 묶음으로써 동일한 개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고, 요인 간의 독립적 해석력을 높이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요인의 수는 고유 값을 기준으로 1.0 이상의 값을 보이는 요인만을 선택하였다.

(1) 세울수준의 요인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인 세울수준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에서 구형성 검증은 KMO(Keiser-Meyer-Olkin)의 측도와 Bartlett의 검증을 사용하였다. KMO 검증은 변수 간의 편상관을 조사하는 것으로 요인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수와 case의 수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표본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값이 0.8 이상이면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artlett 검증은 요인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상관계수 행렬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이 상관계수 행렬이 대각행렬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세율수준의 모든 요인들은 KMO가 0.824로 0.80 이상이고, Bartlett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0.05 이하이므로 변수와 case의 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며, 요인분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5〉 세율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문항	성 분		공 통 성
		1	2	
법인세율	1-6번 문항	0.827	-0.036	0.685
	1-4번 문항	0.808	0.054	0.655
	1-5번 문항	0.753	0.180	0.599
소득세율	1-2번 문항	0.175	0.811	0.688
	1-3번 문항	0.031	0.772	0.597
	1-1번 문항	0.230	0.716	0.565
고유값		2.463	1.164	
% 분산		43.759	19.402	
% 누적		43.759	63.161	
Cronbach의 알파		0.858	0.765	

<표 5>의 세율수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각 설문 항목들의 공통성이 모두 0.3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값을 보이는 요인의 수가 2개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63.161%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 사회과학분야에서 추출된 요인이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경우 요인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세율수준과 관련된 총 6개 설문문항은 법인세율 요인, 소득세율 요인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 1은 설문 4~6문항으로 구성되며, 요인 2는 1~3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제외되는 설문문항은 없었다.

(2)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본 연구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요인들은 KMO가 0.874로 0.80 이상이고, Bartlett의 유의확률

p값은 0.000으로 0.05 이하이므로 변수와 case의 수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하며, 요인분석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요인분석 결과, 매개변수인 납세 의식의 문2-1(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문2-3(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문3-7(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며 만족한다.)은 공통성이 0.3 보다 낮아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6>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최종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각 설문 항목들의 공통성이 모두 0.3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1이상의 고유값을 보이는 요인의 수가 3개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대표하는 항목의 요인 적재량은 모두 0.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의 누적 분산 설명력은 63.27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상 사회과학 분야에서 추출된 요인이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경우 요인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의 총17개 설문 문항은 납세의식 요인, 조세행정의 신뢰도 요인, 납세순응도 요인으로 각각 구성된다.

<표 6>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측정문항	성 분			공 통 성
		1	2	3	
조세행정의 신뢰도	3-3번 문항	0.844	0.032	0.060	0.717
	3-6번 문항	0.840	0.083	0.061	0.717
	3-4번 문항	0.826	0.014	-0.011	0.683
	3-2번 문항	0.771	0.112	0.097	0.616
	3-1번 문항	0.711	0.169	0.180	0.567
	3-5번 문항	0.692	0.110	0.161	0.517
	3-8번 문항	0.665	-0.046	0.136	0.463
	3-9번 문항	0.606	-0.022	0.151	0.390
납세순응도	4-2번 문항	-0.029	0.735	-0.075	0.546
	4-5번 문항	0.098	0.730	-0.233	0.596
	4-4번 문항	0.075	0.655	0.044	0.436
	4-3번 문항	0.119	0.608	0.318	0.485
	4-1번 문항	-0.003	0.550	0.388	0.453

〈표 6〉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계속)

변수명	측정문항	성 분			공 통 성
		1	2	3	
납세의식	2-4번 문항	0.104	-0.155	0.751	0.598
	2-5번 문항	0.163	-0.066	0.723	0.553
	2-6번 문항	0.169	0.180	0.624	0.450
	2-2번 문항	0.100	0.299	0.541	0.327
고유값		5.062	2.278	1.717	
% 분산		29.778	23.397	10.103	
% 누적		29.778	53.175	63.278	
Cronbach의 알파		0.893	0.696	0.608	

다. 상관관계 분석

법인세율, 소득세율,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 납세준응도에서 추출된 총 5개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종속변수인 납세준응도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법인세율은 0.345, 납세의식은 0.171, 조세행정의 신뢰도는 0.168로 모두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득세율은 -0.140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소득세율은 낮을수록 납세준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상과 달리 법인세율은 높을수록 납세준응도가 높아지며,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납세준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 분	법인세율요인	소득세율요인	납세의식요인	조세행정의 신뢰도요인	납세 준응도요인
법인세율요인	1				
소득세율요인	0.423**	1			
납세의식요인	-0.235**	-0.075	1		
조세행정의 신뢰도요인	-0.166**	-0.111*	0.317**	1	
납세준응도요인	0.345**	-0.140**	0.171**	0.168**	1

** : $p<0.01$, * : $p<0.05$

3. 가설의 검증

가. 세월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가설 1]의 세월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소득세율 요인, 법인세율 요인이며, 종속변수로는 납세의식을 각각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직업(납세자 vs. 세무관련자)에 따른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업을 더미변수로 하였다.

<표 8> 세월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모 형	가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값	유의 확률	수정된 R ²	결과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납세의식	(상수)	4.001	0.268		14.932	0.000			4.106	0.007	0.342	
	소득세율 요인	-0.251	0.073	-0.268	-3.458**	0.001	0.756	1.323				채택
	법인세율 요인	0.100	0.073	0.108	1.374	0.171	0.733	1.363				기각
	직업	0.004	0.078	0.003	0.046	0.963	0.942	1.062				

** : p<0.01, * : p<0.05

주1) 납세의식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e$

주2) 직업 더미변수 :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관련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수정된 R²값)은 34.2%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모형의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4.106(유의확률 p=0.007)이므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지표인 분산팽창계수(VIF)가 2.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소득세율 요인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251(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법인세율 요인에 대한 회귀계수값은 0.100(p>0.10)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더미변수인 직업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004(p>0.1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소득세율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율이 오를수록 납세의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납세의식에 대해 소득세율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는 [가설 1-1]은 채택되고, 법인세율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라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사업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율수준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나⁶⁾ 법인은 개인과 다른 별도의 인격체로 인식하고 있어 법인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의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조세정책적인 목적 고려 없이 단순히 증세정책을 채택한다면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세율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가설 2]의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세율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모 형	가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값	유의 확률	수정된 R ²	결과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조세행정의 신뢰도	(상수)	2.524	0.218		11.570	0.000			3.107	0.037	0.288	
	소득세율 요인	가설 2-1	-0.123	0.054	-0.112	-2.278*	0.023	0.756				채택
	법인세율 요인	가설 2-2	0.6	0.056	0.069	1.365	0.173	0.733				기각
	직업		0.257	0.029	0.421	9.012**	0.000	0.942				

** : p<0.01, * : p<0.05

주1) 조세행정의 신뢰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주2) 직업 더미변수 :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관련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소득세율 요인, 법인세율 요인이며, 종속변수로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각각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직업(납세자 vs. 세무관련자)에 따른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업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수정된 R²값)은 28.8%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모형의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3.107 (유의확률 p=0.037)이므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게 나타

6) 소득세율 수준과 납세의식 간에는 음의 유의적 관계를 보인 것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직접적인 차감이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수준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지표인 분산팽창계수(VIF)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결과 소득세율 요인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값은 $-0.123(p<0.01)$ 로 유의적인 반면, 법인세율 요인에 대한 회귀 계수값은 $0.076(p>0.10)$ 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더미변수인 직업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값은 $0.257(p<0.01)$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국 세율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한 바 소득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고, 법인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각되었다.

소득세율 수준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간에 유의적 관계를 보인 것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에서 직접적인 차감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조세행정행태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율 수준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간에 유의적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법인세가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자의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모 형	가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값	유의 확률	수정된 R ²	결과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납세순응도	(상수)	2.543	0.210		12.086	0.000			8.082	0.000	0.485	
	납세의식 3-1	0.159	0.058	0.138	2.736**	0.006	0.897	1.115				채택
	조세행정의 신뢰도 3-2	0.158	0.050	0.174	3.189**	0.002	0.763	1.311				채택
	직업	-0.066	0.029	-0.119	-2.249**	0.025	0.819	1.221				

** : $p<0.01$, * : $p<0.05$

주1) 납세순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납세의식} + \beta_2 \cdot \text{조세행정의 신뢰도}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주2) 직업 더미변수 :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관련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분석을 위해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납세의식, 조세행정의 신뢰도이며, 종속변수로는 납세준응도를 각각 포함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직업(납세자 vs. 세무관련자)에 따른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업을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수정된 R^2 값)은 48.5%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회귀식과 회귀계수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8.082(유의확률 $p=0.000$)이므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다중회귀분석 과정에서 다중공선성 지표인 분산팽창계수(VIF)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의식 요인에 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159($p<0.01$),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회귀계수 값은 0.158($p<0.01$)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더미변수인 직업군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은 $-0.066(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세행정의 신뢰도(표준화 계수 베타=0.174)가 납세의식(표준화 계수 베타=0.1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준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준응도에 대해 납세의식[가설 3-1]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설 3-2]가 납세준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라. 세율수준과 납세준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검증

법인세율수준과 소득세율수준이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매개로 하여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역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이 본 연구에서의 납세의식이 조세정책의 변화와 납세준응도 간의 효과에도 적용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1단계 회귀분석)은 세율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인 납세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며, 모형 2(2단계 회귀분석)은 세율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준응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의미한다. 이어 최종적인 모형 3(3단계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 납세준응도를 설정한 경우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1에서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며, 모형 2에서도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모형 3에서는 매개변수(β_4)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업변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1〉 세율수준과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1 (1단계(독립 → 매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순응도	(상수)		4.001	0.268		14.932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251	0.073	-0.268	-3.458**	0.001
		법인세율	0.100	0.073	0.108	1.374	0.171
	통제변수	직업	0.004	0.078	0.003	0.046	0.963
	매개변수	납세의식					
비 고			F-값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4.106	0.007	0.450	0.342	-0.063**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2 (2단계(독립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순응도	(상수)		3.314	0.219		15.124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085	0.054	0.085	3.157*	0.012
		법인세율	-0.051	0.056	-0.051	-0.914	0.361
	통제변수	직업	-0.010	0.029	-0.019	-0.366	0.715
	매개변수	납세의식					
비 고			F-값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2.917	0.043	0.366	0.306	-0.059*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3 (3단계(독립, 매개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순응도	(상수)		2.395	0.309		7.757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134	0.054	0.134	2.464*	0.014
		법인세율	-0.067	0.055	-0.067	-1.212	0.226
	통제변수	직업	0.239	0.058	0.208	4.146**	0.000
	매개변수	납세의식	-0.029	0.028	-0.052	-3.019*	0.031
비 고			F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5.012	0.001	0.446	0.437	-0.046**

** : p<0.01, * : p<0.05

주1) 모형1) 납세의식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모형2) 납세순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모형3) 납세순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beta_4 \cdot \text{납세의식} + \varepsilon$

주2) 직업 더미변수 :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관련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모형 1(1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 법인세율)와 매개변수(납세의식)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세율(비표준화계수 = -0.251)은 유의적이지만, 법인세율(비표준화계수 = 0.100)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의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모형 2 (2단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납세준응도)에 대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 법인세율)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세율(비표준화계수 = 0.085)은 유의적이지만, 법인세율(비표준화계수 = -0.051)은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모형 3(3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법인세율)와 매개변수(납세의식)에 대해 종속변수(납세준응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매개변수인 납세의식(비표준화계수 = -0.029)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세율수준 중에서 소득세율수준은 납세의식에 매개되어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수준은 납세의식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소득세율수준에 대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수준의 경우, 간접효과 $ab = -0.251 * -0.029 = 0.0072$ 로 부분매개효과 ($ab < c$ 일 경우 부분매개임, ab 는 간접효과, c 는 총 효과를 의미)가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면, 소득세율수준의 경우, a (독립-매개간 모형 1의 회귀계수)는 -0.251(SE : 0.073), b (매개-종속 간 모형 3의 회귀계수)는 -0.029(SE : 0.028)일 때 sobel test 통계량 = 0.9916, $p = 0.321$ 로 기각되어 부분매개효과인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납세의식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의식의 정도에 따라 세율수준이 납세준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1]은 기각된다.

참고로 법인세율수준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수준의 경우 매개효과 조건에 위배되나, 간접효과 $ab = 0.100 * -0.029 = -0.0029$ 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면, 법인세율수준의 경우, a (독립-매개간 모형 1의 회귀계수)는 0.100(SE : 0.073), b (매개-종속 간 모형3의 회귀계수)는 -0.029(SE : 0.028)일 때 sobel test 통계량 = -0.8261, $p = 0.408$ 로 기각되어 부분매개효과인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세율수준과 납세준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방법이 본 연구에서의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세율수준의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준응도 간의 효과에도 적용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1(1단계 회귀분석)은 세율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매개변수인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방정식이며, 모형 2(2단계 회귀분석)은 세율수준을 독립변수로 하고 납세순응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의미한다. 이어 최종적인 모형 3(3단계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로 납세순응도를 설정한 경우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1에서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으로 나타나며, 모형 2에서도 독립변수(β_1 과 β_2)가 유의적이어야 하고, 모형 3에서는 매개변수(β_4)가 유의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직업변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12〉 세율수준과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1 (1단계(독립 → 매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순응도	(상수)		2.524	0.218		11.570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123	0.054	-0.112	-2.278*	0.023
		법인세율	0.076	0.056	0.069	1.365	0.173
	통제변수	직업	0.257	0.029	0.421	9.012**	0.000
	매개변수	조세행정의 신뢰도					
비 고			F-값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32.087	0.000	0.435	0.283	0.152**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2 (2단계(독립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순응도	(상수)		3.314	0.219		15.124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085	0.054	0.085	2.574*	0.016
		법인세율	-0.051	0.056	-0.051	-0.914	0.361
	통제변수	직업	-0.010	0.029	-0.019	-0.366	0.715
	매개변수	조세행정의 신뢰도					
비 고			F-값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2.917	0.043	0.366	0.306	-0.059*

〈표 12〉 세율수준과 납세준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 결과 (계속)

종속 변수	구 분		모형 3 (3단계(독립, 매개 → 종속))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납세 준응도	(상수)		2.793	0.247		11.308	0.000
	독립변수	소득세율	0.111	0.053	0.111	2.072*	0.039
		법인세율	-0.067	0.055	-0.067	-1.217	0.224
	통제변수	직업	0.206	0.048	0.227	4.268**	0.000
	매개변수	조세행정의 신뢰도	-0.064	0.031	-0.115	-2.069*	0.039
비 고			F-값	유의확률	R ²	수정된 R ²	R ² 변화량
			5.012	0.001	0.446	0.437	-0.046**

** : p<0.01, * : p<0.05

주1) 모형1) 조세행정의 신뢰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모형2) 납세준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varepsilon$ 모형3) 납세준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직업} + \beta_4 \cdot \text{조세행정의 신뢰도} + \varepsilon$

주2) 직업 더미변수 : 납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관련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모형 1(1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법인세율)와 매개변수(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소득세율(비표준화계수=-0.123)은 유의적이지만, 법인세율(비표준화계수=0.076)은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모형 2(2단계 회귀모형)에서 종속변수(납세준응도)에 대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 법인세율)의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득세율(비표준화계수=0.085)은 유의적이지만, 법인세율(비표준화계수=-0.051)은 비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모형 3(3단계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세율수준 : 소득세율, 법인세율)와 매개변수(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대해 종속변수(납세준응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매개변수인 조세행정의 신뢰도(비표준화계수=-0.064)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조세정책의 변화 중에서 소득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준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2]는 부분채택된다.

이어서 소득세율수준에 대한 매개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율의 경우, 간접효과 $ab = -0.123 \times -0.064 = 0.0078$ 로 부분매개효과($ab < c$ 일 경우 부분매개임, ab 는 간접효과, c 는 총 효과를 의미)가 나타났다. 따라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면, 소득세율의

경우, a(독립-매개간 모형 1의 회귀계수)는 -0.123 (SE : 0.054), b(매개-종속 간 모형 3의 회귀계수)는 -0.064 (SE : 0.031)일 때 sobel test 통계량=2.5296, $p=0.063$ 으로 채택되어 부분매개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정도에 따라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전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과 가치관으로 납세자의 마음 자세나 태도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심리상태 전체를 의미하는 납세의식을 고취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와 같이 전문성과 공정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를 지향하는 과세관청의 노력에 대해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더 경주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참고로 법인세율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의 경우 매개효과 조건에 위배되나, 간접효과 $ab=0.076 \times -0.064 = -0.0049$ 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0과 다른지, 즉 간접효과가 존재하여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면, 법인세율의 경우, a(독립-매개간 모형 1의 회귀계수)는 0.076 (SE : 0.056), b(매개-종속 간 모형 3의 회귀계수)는 -0.064 (SE : 0.031)일 때 sobel test 통계량= -1.1340 , $p=0.256$ 으로 기각되어 부분매개효과와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세울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기업형태 간 차이분석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에 따라서 세울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었다.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소득세율수준, 법인세율수준이며, 종속변수는 납세순응도이다.

여기에 기업형태를 더미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법인사업자(더미변수=0)와 개인사업자(더미변수=1)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 기업형태에 따라 세울수준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수정된 R^2 값)은 36.6%로 나타났다.

분석모형의 회귀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2.498로 $p<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

소득세율의 회귀계수 값은 -0.048 ($p>0.10$), 법인세율의 회귀계수 값은 0.012 ($p>0.10$)으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형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기업형태의 회귀계수 값은 0.114 ($p>0.10$)이며, 법인세율*기업형태의 회귀계수 값은 -0.092 ($p<0.1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기업형태 간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종속 변수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값	유의 확률	수정된 R ²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납 세 순 응 도	(상수)	3.482	0.270		12.896	0.000			2.498*	0.037	0.366
	세율										
	소득세율	-0.048	0.081	-0.047	-0.429	0.668	0.774	1.292			
	법인세율	0.012	0.081	0.012	0.134	0.914	0.764	1.310			
	기업 형태	-0.566	0.544	-0.457	-1.039	0.300	0.245	4.081			
	상호										
작용항	소득세율 *기업형태	0.114	0.165	0.227	0.758	0.449	0.743	1.346			
	법인세율 *기업형태	-0.092	0.162	-0.225	-0.669	0.504	0.745	1.343			

** : p<0.01, * : p<0.05

주1) 납세순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소득세율} \cdot \text{기업형태} + \beta_4 \cdot \text{법인세율} \cdot \text{기업형태} + \beta_5 \cdot \text{기업형태} + \varepsilon$

주2) 기업형태 더미변수 : 법인사업자=0, 개인사업자=1

결과적으로 세율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5-1]은 기각되고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율수준 변화와 납세순응도 간의 관계는 기업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세율수준 변화라는 조세정책수단의 수립 및 집행 시 기업형태별 구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상호 작용항을 보면, 소득세율의 경우 양(+)이고 법인세율은 음(-)으로 나타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 반대의 경우를 보이고 있어 소득세율수준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율수준에는 법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직업군 간의 차이분석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에 제시되었다.

분석을 위한 회귀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소득세율수준, 법인세율수준이며, 종속변수는 납세순응도이다. 여기에 직업군을 더미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에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소득사업자(더미변수=1)와 세무종사자(더미변수=0)으로 구분하였다.

〈표 14〉 세율수준에 따른 납세순응도의 직업군 간 미치는 영향 검증 결과

종속 변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F-값	유의 확률	수정된 R ²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납 세 순 응 도	(상수)		3.269	0.184		17.746	0.000			3.192 [*]	0.031	0.396
	세율 수준	소득세율	0.141	0.065	0.141	2.153 [*]	0.032	0.767	1.304			
		법인세율	-0.108	0.073	-0.108	-1.484	0.139	0.776	1.289			
	직업군		0.474	0.369	0.380	1.285	0.200	0.270	3.703			
	상호 작용항	소득세율 *직업군	-0.128	0.088	-0.351	-1.464	0.144	0.915	1.092			
		법인세율 *직업군	0.141	0.099	0.356	1.433	0.153	0.991	1.009			

** : p<0.01, * : p<0.05

주1) 납세순응도 = $\alpha + \beta_1 \cdot \text{소득세율} + \beta_2 \cdot \text{법인세율} + \beta_3 \cdot \text{소득세율} \cdot \text{직업군} + \beta_4 \cdot \text{법인세율} \cdot \text{직업군} + \beta_5 \cdot \text{직업군} + \varepsilon$

주2) 직업군 더미변수 :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1,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0

회귀모형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결과, 직업군에 따라 세율수준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력(수정된 R²값)은 39.6%로 나타났으며, 분석모형의 회귀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F값은 3.192로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분석모형이 회귀분석을 위한 적합한 모형이라 판단할 수 있다.

소득세율의 회귀계수 값은 0.141(p<0.05)으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법인세율의 회귀계수 값은 -0.108(p>0.10)으로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직업군의 회귀계수값은 -0.128(p>0.10)이며, 법인세율*직업군의 회귀계수 값은 0.141(p>0.10)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세율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업군(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없어 소득사업자와 세무종사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 5-2]는 기각되고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납세순응도에 대하여 납세자, 과세권자, 세무대리인 등 조세관련 이해관계자 집단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김승한(2013)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세율수준의

변화와 납세순응도 간의 관계는 직업군(사업자와 세무종사자)에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율수준 변화라는 조세정책적수단의 강구시 직업군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상호 작용항을 보면, 소득세율의 경우 양(+)이고 법인세율은 음(-)으로 나타나 소득사업자와 세무종사 간에 반대의 경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는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가, 법인세는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의식 및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등 4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이용해 신뢰성 분석을 하였고,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변수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3단계 다중회귀분석 및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대해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인세율 수준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소득세율이 오를수록 납세의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변화는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율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나, 법인세율 변화는 납세의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율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 중 소득세율 수준과 법인세율 수준이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법인세율 수준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과 조세행정의 신뢰도 모두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납세의식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아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사이의 관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납세의식의 정도에 따라 세울수준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납세순응도 간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소득세율은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매개되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인세율에 대하여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의 매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도 정도에 따라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섯째,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와 기업형태(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 납세순응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형태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기업형태에 따라서 납세순응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율의 변화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율 변화에는 법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곱째,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직업군에 따라서 세울수준이라는 조세정책적 변수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득사업자와 세무종사자 직업군에 따라서는 납세순응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세는 세무종사자(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가 법인세는 소득사업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적절한 설문응답자가 선정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즉, 법인사업자의 경우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 답변했는지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또는 직원이 응답했는지 의문이 있다.

둘째, 과세당국인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직업군간의 차이 분석 결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응답자 선정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8. “국민이 국세청을 직접 평가하는 조세행정의 신뢰도 평가 결과 62.5점”, 보도자료.
- 국세청. 2013. “소득은 감추고, 세금은 안내고, 검은 돈은 금고에?”, 보도자료.
- 구광희. 2010.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조세행정의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운옥. 2008. 매입세액공제율의 변화가 납세순응태도에 미치는 영향—재활용폐자원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윤·심충진·이영환. 2013. “소득과세의 공평성 평가와 합리적 증세방안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4호 : 41—72.
- 김명중·송민정. 2013. “홈택스 시스템의 품질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6호 : 133—162.
- 김승한. 2013.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명호·심태섭. 2008. “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순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 55—84.
- 박주철·이남우. 2003. “소득원천이 세율과 납세순응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연구”, 세무학연구 제20권 제3호 : 109—132.
- 박창균·현진권. 2002.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 실험자료를 사용한 실증결과”, 경제학연구 제50집 제1호 : 125—144.
- 배수진. 2010. 과세당국의 제재와 보상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병관. 2014. 조세정책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수준을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태성. 2010. 지방세 납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희상. 2009. 부당신고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원석·윤성만. 2014. “법인세율을 이용한 세수확보정책의 타당성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1호 : 189—216.
- 홍성근. 2011. 세무정보 전산화와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진권. 2005.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11권 제3호 : 136—175.
- 현진권·박창균·강병민. 2002. “실험자료를 사용한 납세순응행위의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8권 제3호 : 59—80.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 1173—1182.
- Boylan, S. J., and G. B. Sprinkle.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 : 75—90.
- Beck, P. J., J. S. Davis, and W. O. Jung. 1991. Experimental Evidence on Taxpayer Reporting under Uncertainty, *The Accounting Review* 66(July) : 535—558.
- Collins, J. H., and R. D. Plumlee, 1991. The Taxpayer's Labor and Reporting Decision : The Effect of Audit Schemes, *The Accounting Review* 66(July) : 559—576.
- Moser, D. V., J. H. Evans III, and C. K. Kim. 1995. The Effects of Horizontal and Exchange Inequity on Tax Reporting Decisions, *The Accounting Review* 70(October) : 619—934.

A Study on the Effects of Tax Rate Change on Tax Compliance

Yu, Byeong Kwan* · Hong, Jung 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variables of tax rate policies on the level of tax compliance. To reach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 reviewed the press in relation to tax rate policy and tax compliance, various papers and more as evidence along with theoretical study, did a survey targeting the four groups(taxpayers, tax and accounting professionals, revenue officer) about the level of tax rate(income and corporate tax rate), tax consciousness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level of tax compliance, policies on improvement of tax administration and question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demographics and collected 418 responses applying them to the analysi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

First, after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 tax policy 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income tax rate effect on the tax consciousness towards negative direction but corporate tax rate did not effect on the tax consciousness. Second, verifying the effect of income and corporate tax rate(which are one of the tax policy variables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on tax consciousness showed that although the standard of income tax rate effects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standard of corporate tax rate does not effect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ird, verifying the effect of tax 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both tax consciousness and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effects the level of tax compliance. Fourth, verifying mediated effect of tax consciousness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showed that tax consciousness does not play its role as a mediator having no influ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he tax policy variable and the level of tax compliance. Fifth, verifyi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showed that although income tax rate is mediated by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does not have any mediated effect on the corporate tax rate reaching the resul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ax policy variable partly depending on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Sixth, analyzing the difference of the level of tax compliance among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and the form of enterprise(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showed that depending on the form of enterprise it does not have a notable

* Ph.D Student, Gachon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Gch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ffect on the level of tax compliance which can be analyzed that the level of tax compliance does not change between the form of enterprise of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Seventh, verified whether or not the effect of the tax policy variable called the level of tax rate differs o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the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tioner, it did not show a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occupational cluster of earnings taxpayer and tax practitioner statistically appearing that tax practitioner is more aware of income tax and that earnings taxpayer is more aware of corporate tax.

<Key words> tax rate policy, level of tax rate, tax compliance, tax consciousness,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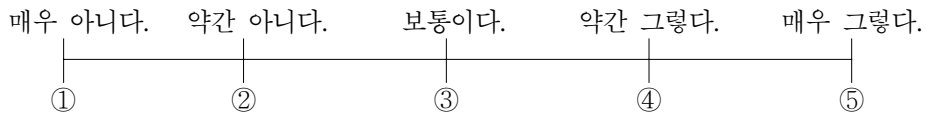
〈부 록〉 설문지

✔ 세율수준에 대한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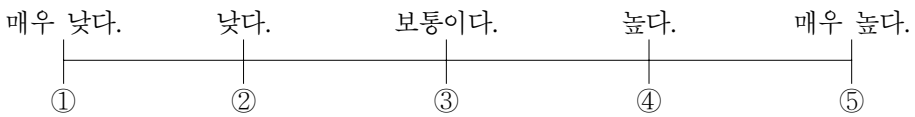
1.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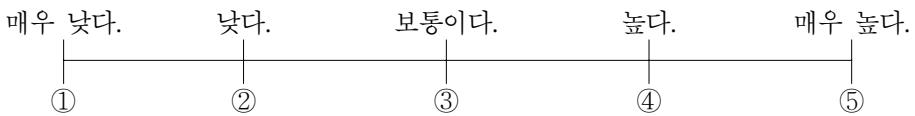
2.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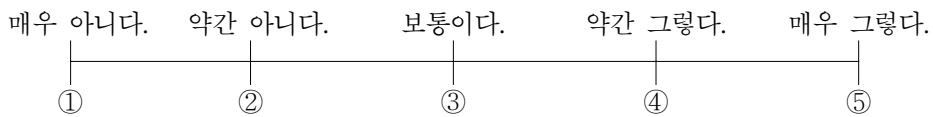
3.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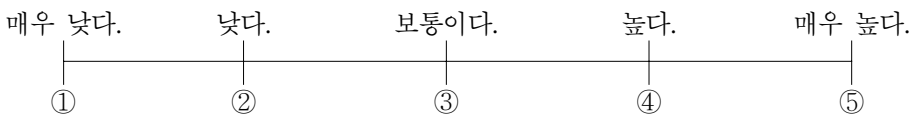
4. 현행 법인세의 세율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현행 법인세 세율은 조세를 회피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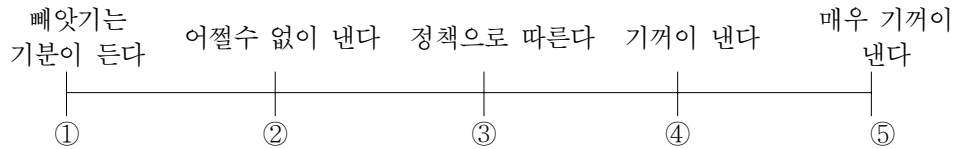


6. 현행 법인세의 세율수준은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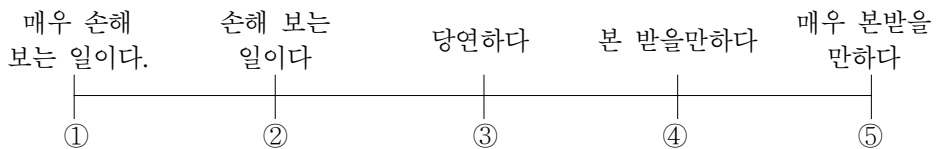


♥ 납세의식 관련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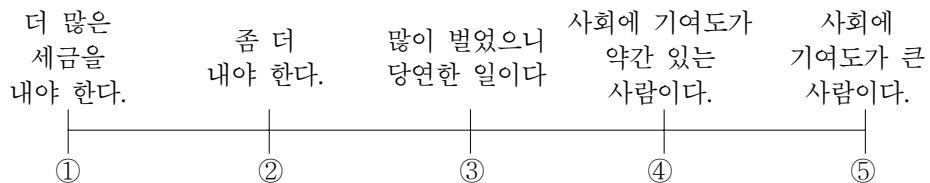
1.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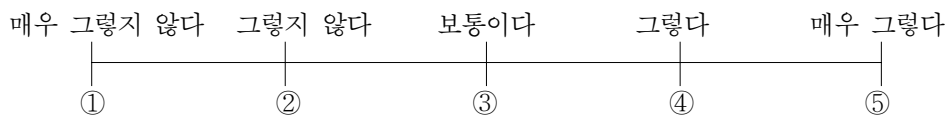
2. 본인이든 아니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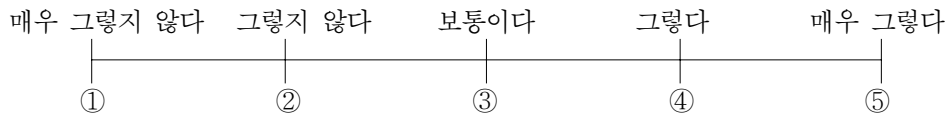
3.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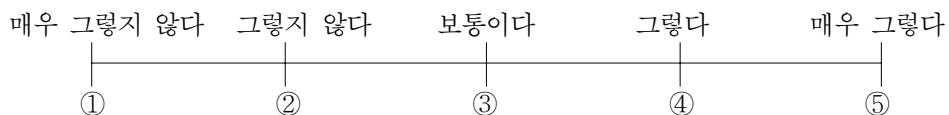
4. 세금을 축소보고한 사람에게 가산세를 물리거나 형사처벌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주변에서 탈세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세금 중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세행정의 신뢰도 관련 설문조사(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공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②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등 조세 정보는 신뢰할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③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⑤ 국세공무원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⑦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서비스는 이용하기 편리하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⑧ 세무행정에대한 이의제기 등 조세불복 절차 및 경로가 간소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⑨ 민원업무처리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납세순응도 관련사항(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 귀하는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각종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을 정직하게 납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4. 본인 및 타인이 과세당국에 신고한 2012년 귀속 법인세·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실제의 소득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납세자의 성실납세 수준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